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2

청렴윤리경영 실행 및 평가

2024 February | Vol.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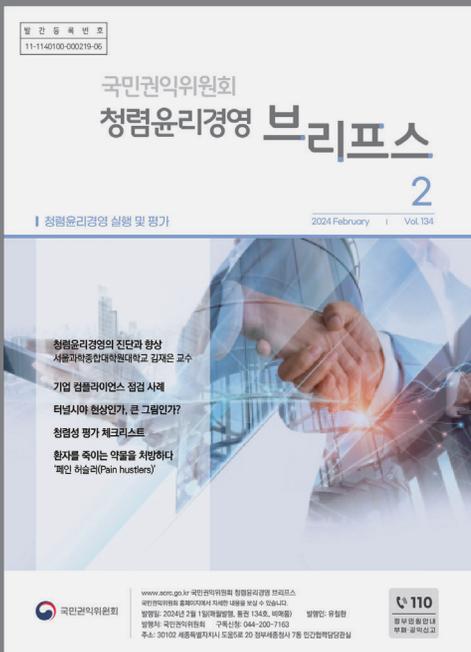
청렴윤리경영의 진단과 향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김재은 교수

기업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례

터널시야 현상인가, 큰 그림인가?

청렴성 평가 체크리스트

환자를 죽이는 약물을 처방하다
'페인 허슬러(Pain hustlers)'



COVER STORY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은 기존의 모호성으로 구체적 실행과 평가가 어려웠으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중 거버넌스 영역에서 또는 규제를 통해 기업의 반부패 및 윤리경영이 별도의 평가 지표로 분리되고 그 가중치가 지속해서 증가하며, 평가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청렴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평판 손실 등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이 청렴윤리경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진단 및 관리하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01	전문가 코칭	04
	청렴윤리경영의 진단과 향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김재은 교수	
<hr/>		
02	사례돌보기	07
	기업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례	
<hr/>		
03	보고서리뷰	12
	터널시야 현상인가, 큰 그림인가? EY(2022), Global Integrity Report 2022: Tunnel vision or the bigger picture?	
<hr/>		
04	행동하는 윤리경영	16
	청렴성 평가 체크리스트	
<hr/>		
05	문화 속 기업윤리	21
	환자를 죽이는 약물을 처방하다 '페인 허슬러(Pain hustlers)'	
<hr/>		
06	뉴스클립	2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hr/>		
07	웹툰 윤리네컷	25
	윤리경영 점검 및 자정활동	
<hr/>		
08	행사소식	26
<hr/>		
09	퀴즈	27



전문가 코칭

청렴윤리경영의 진단과 향상

김재은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번 호에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김재은 교수님의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진단과 이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향상 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Q1)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활동을 측정 및 진단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경영의 일부로서 청렴윤리경영의 성과측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현장에서 청렴윤리활동의 측정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청렴윤리경영의 효과성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청렴윤리경영의 기획, 운영, 평가의 우수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를 성과지표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표준이나 업계의 합의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청렴윤리경영의 성과를 규정위반이나 부패건수(정량수치)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담조직 설치, 위험평가, 교육시수 및 수강인원 등 과정지표를 균형있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하여 업계합의도 제한적이었고 기업별로도 차별적으로 운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글로벌 기업이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구현시 결과지표 뿐 아니라 '중간과정(지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효과성 평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국제기구나 해외정부에서 특정 기업의 부패사건 발생여부 뿐만 아니라 평소에 완성도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혹은 제도의 운영여부 모두를 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등 연기금에서는 기업 반부패경영 평가시 부패리스크 최소화 및 효율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등을 고려하여 정책내재화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윤리활동의 효과성 평가가 단순히 법규 및 규정 위반건수를 넘어 기업 내부의 정책수립 및 내재화, 반부패 윤리경영활동의 우수성, 성과 모니터링 품질 등 활동전반에 걸쳐 전주기적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권익위의 K-CP(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제도에서도 효과성 평가에 대한 항목이 핵심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청렴윤리경영활동의 효과성 평가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고민하시는 기업들에게 성과평가시 사내 CP제도 전반에 걸쳐 전주기적 평가 프레임 설정할 것과 초기단계일 순 있지만 평가의 객관성 및 대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Q2) 조직의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의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부패위험 식별의 필요성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접근법도 연동되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청렴윤리경영의 고착점 중 하나는 과거의 윤리경영제도에 매몰되어 5년 전의 규정과 체계를 현상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렴윤리경영 정책 및 제도, 전담조직 구성, 교육 및 효과성 측정 등 제도 전반이 기업의 활동지역, 산업별 특징, 공급사슬 위치, 임직원 구성 및 자회사 형태 등 현재의 기업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령, 제3자 위험 등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며, 이를 비용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최적화하는 접근법과 천편일률적인 3C's(Code of Conduct, Compliance, Communications)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효과성 차원에서 큰 격차가 예상됩니다.

이에 조직의 청렴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첫 단계는 우리 회사의 청렴윤리경영 위험 사전식별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및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낡아진 청렴윤리경영활동의 현행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가능한 핵심적 위험을 사전식별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및 국내 규제환경요인을 반영하여 회사의 부패리스크 맵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개선과 사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면 회사의 청렴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반부패 윤리경영 교육도 획일적인 대면식 교육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 위험 위주로 유관부서 및 담당자들에게 표적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입한다면 효과성이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요약하면, 청렴윤리경영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청렴윤리경영제도의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단편적 이벤트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험관리 측면에서 우리회사의 고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비례적인 대응활동 및 교정조치를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면, 기업환경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청렴윤리경영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청렴윤리경영 수준제고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시작합니다
https://www.acrc.go.kr/briefs/4a3dd017d79523c1f9067ff06dd5d087ec0c8bbb732eb99cb4fcf7e30ce64f04/sub_1.html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사례

사례돌보기



기업의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ESG 관련한 많은 규제와 기준들이 도입되면서 모든 기업에 기업 윤리가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다년간 ESG달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지 않아 여론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례가 뉴스에서 종종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이 다년간 쌓아 올린 대외적 평판과 신용 및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형사처벌까지도 야기하기도 한다. 많은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기업에 따라 점검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사례 돌보기에서는 모범사례 또는 개선사례를 통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점검 제도와 정책 및 내부 시스템 평가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ABB Ltd.

ABB Ltd. (ABB)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다국적기업으로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세계 3대 엔지니어링 회사로 꼽힌다. 주요 산업은 전력, 자동화기술, 로봇공학이다. ABB는 2022년 12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에너지기업 고위 공무원 대상 뇌물 수수에 따른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3억 15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스위스와 남아공의 ABB 경영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에너지 회사인 에스콤 홀딩스(Eskom Holdings Limited, 이하 에스콤)의 고위 공무원과 공모하여 이 공무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BB는 서비스 제공업체에 3,7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여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그 대가로 ABB는 에스콤의 쿠실레 발전소에 케이블 연결 및 설치 작업을 제공하는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ABB는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금 중 일부가 실제로는 남아공 정부 공무원에 대한 뇌물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사업 비용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이 사건으로 ABB는 FCPA의 뇌물 수수 금지, 장부 및 기록, 내부 회계 통제 조항을 위반했다는 SEC의 중지 명령에 동의하고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BB는 내부 회계 통제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 현황을 3년 동안 SEC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었다.

이에 ABB는 지속가능성 전략 2030의 일환으로, 청렴성과 투명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2022년에는 이를 수정하여 청렴성이 ABB의 운영 모델에 더 잘 포함되도록 반영했다. 2030년 청렴성 및 투명성 목표 중 하나는 '청렴성에 대한 책임과 목표 학습, 투명한 보고 및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 관리 전략과 글로벌 청렴성 프로그램(ABB's global Integrity Program) 시행'이다. 이 목표에 따라 2022년에는 청렴성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유도하고 청렴성 기반 학습, 보고 및 모니터링에서 얻은 실시간 데이터에 위험 관리 전략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청렴성 프로그램의 이행과 효과를 측정했다.

〈ABB의 글로벌 청렴성 프로그램 및 효과성 측정〉

ABB글로벌 청렴성 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방안
고위 경영진과 중간 경영진의 약속	회사는 고위 경영진과 중간 경영진이 지원하는 서류화된 프로그램 이상의 청렴 및 규정 준수 문화를 갖추고 있다.	연례 직원 참여 설문조사, 청렴성 성과표 KPIs(Integrity Leaderboard KPIs) ¹⁾ , 법무 및 청렴성(L&I) 지표 성과 보고서
행동강령 및 절차	회사의 전반적인 청렴성 및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강령은 회사의 청렴성 기대치와 적절한 절차, 프로세스 및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분기별 보고

감독, 자율성 및 자원	이사회는 필요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고위 경영진은 청렴 프로그램의 방향과 실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청렴성 부서에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청렴성 성과표 KPIs, L&I 지표 성과 보고서, 내부 감사 및 데이터 분석
위험 평가	회사는 산업 분야, 규모, 지리적 확산,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및 규제에 따라 직면하는 위험을 적절히 분석하고 해결한다.	ERM(전사적 위험 관리) ²⁾ , 사기 위험 평가, 부패 방지 위험평가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회사는 관련 정책 및 절차가 조직 전체에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직원 및 관련 외부 파트너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청렴성 성과표 KPIs, L&I 지표 성과 보고서
인센티브 및 징계	회사는 회사의 청렴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직급에 걸쳐 일관되게 적절한 징계를 적용하며, 규정 준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시간 사례 대시보드 (Dashboard)
제3자 실사	회사는 관계 유형 및 이와 관련된 위험과 관련된 제3자의 참여 및 성과에 대해 위험 기반 실사 및 감독을 수행한다.	내부 감사 및 데이터 분석
인수합병, 인수 전 실사 및 인수 후 통합	회사는 조직을 인수하거나 JV(Joint Venture, 합작법인)를 설립하기 전에 리스크 기반의 실질적인 규정 준수 실사를 수행하고, 거래 대상 또는 파트너십을 자사의 청렴성 프로그램에 리스크 기반으로 통합하거나 적절한 리스크 기반의 통제를 설계한다.	내부 감사 및 데이터 분석
위법 행위에 대한 기밀 보고 및 내부 조사, 위법 행위의 분석 및 개선	회사 직원 및 제3자는 익명으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잠재적 규정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 조사관은 이러한 우려를 적시에 판단한다. 회사는 입증된 청렴성 위반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수행한다.	실시간 사례 대시보드, 청렴성 성과표 KPIs
지속적 개선, 주기적 테스트 및 검토	회사는 지속적으로 청렴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개선 기회를 파악하고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테스트한다.	내부 감사 및 데이터 분석

출처: The Global ABB Integrity Program(2022.12)

- 1) ABB가 정직성 이니셔티브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고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비즈니스 영역, 부서 및 그룹 전반에 걸쳐 신뢰, 참여 및 투명성 지표를 평가한다. KPI는 월별 비즈니스 검토에 통합되므로 모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다.
- 2) 조직의 위험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말하며 조직이 예상되는 위험을 관리하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원칙 및 절차를 의미 (출처: ORACLE 홈페이지 <https://www.oracle.com/kr/erp/risk-management/what-is-enterprise-risk-management/>)

2. KT

한국의 통신회사인 KT는 지난 2022년 2월 17일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630만 달러(한화 7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하였으며, 2022년 6월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컴플라이언스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윤리경영 실천, 준법의지를 표명하고 내부 통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KT는 전사 위험성 평가와 리스크가 증가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과 발생 빈도가 높은 중점 관리분야를 9대 중점관리분야(부패방지, 공정거래, 하도급, 정보보호, 계약, 인사, 산업안전보건, 회계세무, 이용자 보호)로 선정하고 ‘제도-교육-점검-평가 및 개선’의 선순환 구조 기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확립했다.

이러한 KT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점검은 제도 이행, 인식제고, 인프라 활용 등 제반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법규나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를 넘어,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의 준법 수준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KT는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컴플라이언스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직 내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KT는 점검 선순환 체계의 자발적 운영을 위해 PDCA³⁾ 모델에 기반하여 수립한 점검 프로세스를 시행한다. 프로세스는 다음의 도표와 같이 연초에 부서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점검 실행, 운영실태 평가, 미비점 개선의 단계로 진행하며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KT 컴플라이언스 점검 프로세스〉

	점검체계 2021년 12월	점검계획 2022년 1월	점검실행 2월 - 9월	평가/개선 7월, 10월
점검 프로세스	연간 점검계획 확정/인내	부서별 리스크 수준 자체진단	부서별 자율점검 계획 수립	컴플라이언스 자율점검활동
	부문/광역본부, 산하 본부 담당자 선정	자율점검표 항목별 위험성 평가 (발생가능성/영향도 고려)	위험성 평가 결과 (상/중/하/미대상) ↓ 연간 리스크 예방활동 계획 수립	인식제고 컴플데이, 교육, 뉴스레터, 퀴즈이벤트, 기타 홍보물 제작 등 활동
	부서점검 방법론 등 점검 패키지 개선		부서점검 Data 분석/실사 등 실태점검/개선 부서 고위험 리스크 중점 점검/관리	보고, 기록/보관 점검결과/개선조치 부서장 보고/피드백 활동 과정/결과 문서화(물렛폼 등)
				정기점검 평가/개선
				정기점검 결과 평가 반영
				운영 개선사항 도출 (담당자 인터뷰, 설문조사 등)

출처: KT, ESG보고서 2023

3) PDCA는 실행 주체, 사업 환경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Plan)하고, 역량 자원의 활용 및 운영 설계를 통해 CSV를 실행(Do)하고, 성과 평가 및 이해관계자 피드백 등의 다차원 평가(Check)를 받으며 개선점 보완 등을 진행(Action)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출처: 동아일보, "P.D.C.A' 통해 지속가능 CSV 모델 발굴"(2022.12.07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06/116881883/1>)

부서별로는 과거 사고 사례를 토대로 고위험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본부 단위로 집중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는 등 부서 주도의 자율적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부서별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2022년에는 임직원의 자율 준수수행을 지원하는 웹/모바일 플랫폼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에 부서별 자율점검을 위한 데이터 점검 자동화 기능을 내재화하여 사내 시스템 연동, 자동분석 기능 등 데이터 추출 소요시간을 기존 평균 1.2일에서 20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룹사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확대했다.

〈KT 컴플라이언스 웹 플랫폼〉

웹 플랫폼	데이터 자동 추출	간편한 자동 분석	자가점검 후 사전 대응
			
컴플라이언스 부서점검 웹 접속	컴플라이언스 점검항목 선택	컴플라이언스 점검 수행/이력관리	상세 점검결과 확인/대응

출처: KT, ESG보고서 2023

참고

- KT, ESG보고서 2023
- KT 홈페이지 | <https://corp.kt.com/html/sustain/transparent/kt-law-policy.html>
- ABB, Sustainability Report 2022 | <https://sustainabilityreport.abb.com/2022/integrity-transparency.html>
- ABB, The Global ABB Integrity Program(2022.12)
- 네이버 기관단체사전(검색일: 2024.02.17)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9932&cid=43167&categoryId=43167>
- 한국경제, "직원의 2000억 횡령 사건, 시로 막을 수 있을까 [각시]"(2023.12.17)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71659i>
- 임팩트 온, "법무법인(유)지평, ESG 리스크 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2023.11.15) |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309>
- SEC, "Largest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 Agrees to Pay the SEC to Settle FCPA Charges"(2022.2.17) |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30>
- SEC, "ABB Settles SEC Charges That It Engaged in Bribery Scheme in South Africa"(2022.12.3) |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214>
- DOJ, "ABB Agrees to Pay Over \$315 Million to Resolve Coordinated Global Foreign Bribery Case"(2022.12.6) | <https://www.justice.gov/opa/pr/abb-agrees-pay-over-315-million-resolve-coordinated-global-foreign-bribery-case>



보고서리뷰

터널시야 현상⁴⁾인가, 큰 그림인가?

■ 보고서: Global Integrity Report 2022: Tunnel vision or the bigger picture?(2022)



EY(Ernst & Young)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이다. EY는 ‘2022 글로벌 윤리경영 리포트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세계 54개국 4,762명의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를 소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ESG보고에 대한 압력이 커짐에 따라 기업이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역시 커지고 있으며 기업의 청렴성은 구성원들에게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고위 경영진이 기업 청렴성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과신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위 경영진과 직원간, 고위 경영진의 말과 실제 행동 간에 괴리가 있다. 보고서는 청렴경영 실행을 위해 기업이 어떻게 ‘청렴성’의 가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청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통해 청렴성과 관련된 외부 위협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지 제시한다.

4) 터널시야 현상(Tunnel vision): 운전자가 터널에 들어가면 빛이 나오는 출구만 보고 달리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느라 주위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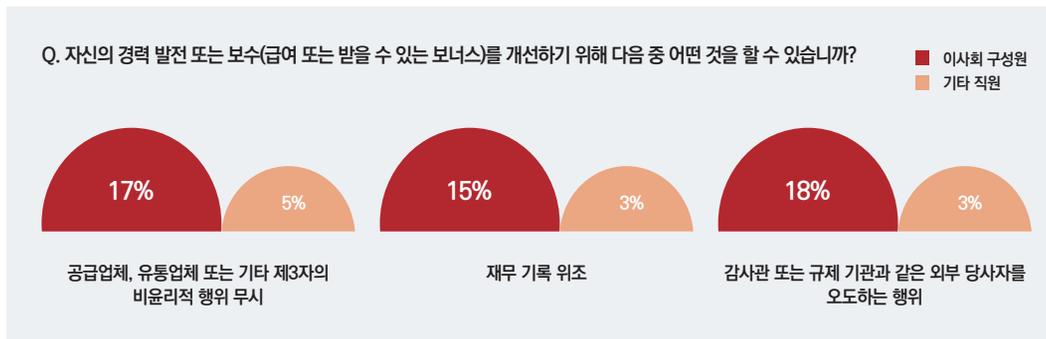
2022 EY 글로벌 윤리경영 리포트

기업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스캔들은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든다.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로 기업 리더들은 더 큰 책임감을 요구받고 있으며, ESG 측정 및 평가 증가는 기업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청렴성은 주주와 경영진, 회사와 직원, 공급업체와 파트너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속에서도 기업 응답자의 97%가 기업 청렴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2년에는 2020년 조사에 비해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정기적인 청렴 교육에 투자하고, 조직 가치 선언문을 마련한 기업이 더 많아졌다.

1. 청렴성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기업이 주장하는 바와 행동의 차이('말과 행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고위 경영진이 기업 청렴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렴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에 대해 기업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50%)이 법, 규정 및 행동강령 준수를 꼽았으며, 응답자의 3분의 1(33%)만이 통념 차원의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청렴의 중요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직원 대비 규칙을 벗어나거나 위법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 리더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그림 1〉 참고). 또한 신흥시장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비윤리적 행동 성향이 34%에서 41%로 증가했다.

〈그림1. 규정 위반에 대한 고위관리자의 인식〉



출처: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

또한 고위 관리자는 직원들이 조직 내 청렴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원과 고위 관리자 77%는 직원들이 두려움 없이 부정행위를 보고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나, 직원의 20%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조직 내 위법 행위를 신고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2020년 23%에서 2022년에는 19%로 4%p 감소하기도 했다. 93%가 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교육, 행동 강령, 내부 고발 정책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 교육이 있다고 응답하는 기업은 59%에 달하지만, 직원 6명당 1명은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렴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보고서에서는 최적의 청렴성 환경은 모든 직급과 직무에 걸쳐 가치가 공유되고 투명성이 높으며 위반이 용납되지 않는 기업환경이라고 말한다. 앞서 다룬 내용과 같이 기업의 고위층에서는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 관대해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사회 구성원 34%는 고성과자의 비윤리적인 행동이 용인된다는 데 동의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리더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조직의 직원들이 윤리적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기업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정도는 청렴문화의 필수적인 기준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사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이 보고하고 그 대가로 직원을 보호하는 상호보호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직급의 직원들은 보고 이후에도 안전하며, 위반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은 보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보고해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꼽고 있다. 보고의 어려움에 대한 이사회와 직원 간의 인식에도 격차가 나타난다. 보고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인식하는 직원의 비율(25%)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사회(47%)의 비율의 대략 절반 정도로 나타났으며, 우려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쉽다고 답한 직원 응답자의 비율은 36%로 202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경영진이 내부 청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만으로 조직의 모든 개인, 하위 문화, 네트워크의 문화와 행동을 즉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굳건한 의지를 적절히 조합한 관리 및 투자가 필요하다. 청렴성 문화는 조직의 계층간(최고위층과 최하위층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달려있다.

또한 디지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디지털기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를 통합한 청렴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인식과 행동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의 청렴성은 규정준수 및 위험관리보다는 조직, 자산 및 평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청렴성 의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섯가지 행동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청렴성 의제를 촉진하기 위한 다섯가지 행동〉

1. 비즈니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 사기 및 부패 위험 평가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여정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진지하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빈틈이나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강력하게 수행해야 한다.
2. 사람이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사기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기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올바른 일을 하는 문화가 없으면 최고의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라도 위반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청렴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제어 환경만큼이나 중요하다.
3. 데이터의 힘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 데이터의 증가를 위협이 아닌 사기 방지에 도움되는 기회로 생각해야 한다. 자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불규칙한 행동을 감지하고 예방 및 조사에 대한 대응을 안내해야 하며 ESG 여정을 돕고 청렴성 의 제에 부합하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4. 훈련이 아닌 교육
-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청렴 메시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 청렴이 '무엇'인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5. 내부고발에 대한 발언 및 지원
- 사람들에게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을 선의로 보고(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출처: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

참고

- 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2022)



행동하는
윤리경영

청렴성 평가 체크리스트



UNDP(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보고서 ‘Transparency and 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2020)’를 통해 기업이 부패방지 정책 및 실행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인지 자체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2022년에는 영국의 지원을 받아 아세안 국가의 기업들이 청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체크리스트(‘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es (2022)’를 게재했다. UNDP에 따르면 기업의 운영과 그 공급망에서 부패를 제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국내외 규범들을 고려하면 거버넌스 분야에서도 특히, 반부패·준법 경영과 투명경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 그에 비해 이 영역들은 단기간 내에 관리체계 수립이 가능한 영역이므로 기업이 ESG경영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해당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규제와 ESG 평가 대응 및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에서는 위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기업의 청렴윤리경영과 ESG 중 거버넌스 관리를 돕기 위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가장 필수적으로 점검 및 정비되어야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표를 정리하고 알아보고자 한다.

1 청렴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정책적 관점에서 자사의 청렴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면 사업의 규모와 산업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규모와 산업의 부패 위험도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본사와 지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해외 부패방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대리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부패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자체적으로 청렴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과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UNDP의 보고서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보고서를 참고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회사가 '아니오'라고 답하는 경우, 개선이 권장되는 지표이거나 중소기업 ESG경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표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즉, 해당 지표는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필수적인 관리 및 개선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는 이를 포함하여 더 크고 포괄적인 반부패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해당 없음'이 체크되면 대개의 경우 해당 지표는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고려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은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UN협약과 일부 지역 협약에서 정의된 범죄 비교〉

분류	관리 지표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정책 영역	부패방지 정책 및 뇌물방지 정책이 있습니까?			
	부패방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책에 경영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까?			
	정책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패에 대한 무관용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정책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까?			
	정책은 다른 민간기업에 대한 뇌물 수수 및 공여를 금지합니까?			
	정책은 갈취(extortion) ⁵⁾ 를 금지합니까?			

5) 강압적인 위협의 결과로 부당한 협력이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권력이나 지식에 대한 접근권을 이용하는 행위.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갈취(extortion)를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분류	관리 지표	예	아니오	해당없음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정책 영역	정책은 성착취를 금지합니까? - 성적 착취는 성을 뇌물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부패로 정의된다. 정책에 성별에 따른 부패 영향의 차이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은 급행료 지급을 금지합니까?			
	정책에 따라 선물이 제한됩니까?			
	접대(hospitality)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 행동강령/방침 등이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정책 적용 범위 (질문에 언급된 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후 채점하지 않음 (*임원, 직원 제외))	정책이 이사회에 적용됩니까?			
	정책이 임원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직원에게 적용됩니까? - 모든 직원은 정책을 검토하고 매년 서명하며 반부패 교육을 받습니까?			
	정책이 대리인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공급자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적용됩니까?			
	정책이 합작투자까지 적용됩니까?			
	정책이 자회사에게 적용됩니까?			
담당자	청렴 책임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자가 있습니까?			
	담당자는 우리 조직 내에서 '청렴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구축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중앙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청렴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된 모든 개발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는 '청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예산을 할당하고 있습니까?			
	조직 내 '청렴 프로그램'을 주도 및 구축하며/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청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파트너의 중앙 연락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분류	관리 지표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부고발 및 조치	내부고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당사 대표에게 제공하는 관련 내부고발 메커니즘을 조직 내로 확장 및 구축하고 있습니까?			
	보복금지 정책 선언문이 있습니까?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메커니즘이 성별에 민감합니까? (성착취 등 다양한 부패문제를 다룰 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			
	신고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위한 독립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회계 및 세금 준수, 부패 및 뇌물방지, 노동법 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우려 사항을 적시에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부통제	명확하게 기록되는 회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조직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적절한 형태로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관련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합니까? - 조직의 자금관리 및 집행이 독립적인 부서/인력에서 투명하게 운영됩니까?			
	이해상충(COI) 신고서를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까?			
	이해상충(COI)가 이사회에게 적용됩니까? (*이사회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기 후 채점하지 않음)			
	이해상충(COI)은 임원에게도 적용됩니까?			
	이해상충(COI)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까?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부패/뇌물수수/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직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법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류	관리 지표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개, 소통 및 교육	경영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최고경영진이 조직 내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조직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법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고객사 요청 시 조직의 주요 ESG 리스크/기회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반부패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서약이 있습니까?			
	조직 내에서 부패방지 정책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회사 웹사이트에서 부패방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채점하지 않음.)			
	연례 보고서에 외국에서 운영되는 회사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까?			
	직원은 부패 방지 정책과 부패 대응 방법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최소 1년에 한 번, 공인된 외부 교육업체나 비즈니스 파트너가 실시하는(제3자 청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렴 교육에 대표자를 파견하거나 참석하고 있습니까?			
	재교육 훈련 및 공지를 정기적으로 제공합니까?			
	회사 및 공급망, 비즈니스 파트너의 청렴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까?			
	공급업체와 계약에 공급업체의 청렴 정책과 관행 확립에 대한 요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고객사와 계약체결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입찰 단계부터 거래 성사, 용역 종료시까지 법률 및 절차상의 공정성을 준수합니까?				

참고

- UNDP, 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es (2022.5.11)
- UNDP, Transparency and Integrity Self-Assessment Toolkit for Business(2020.12.21)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2021.8)



환자를 죽이는 약물을 처방하다,

영화 ‘페인 허슬러(Pain hustlers)’



*이미지출처: 넷플릭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산업에 비해 공익성이 강조된다. 약품의 효과나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고, 자격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약품을 다루는 폐쇄적인 유통구조로 제약산업에서의 직업윤리와 투명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및 의료시장에서 음성적인 리베이트와 사기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뇌물 수수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2014년 스타트업 제약회사 인시스(Insys Therapeutics)는 모르핀보다 50~100배 더 강한 약효를 발휘하는 마약성 진통제 서브시스(Subsys)를 개발하였다. 이 신약은 강한 진통효과로

암환자의 심한 통증을 치료하는 구체적인 목적으로만 FDA의 승인을 받는다. 제한된 대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판매가 부진하자 인시스의 설립자 존 카푸어와 경영진은 영업사원들에게 의사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뇌물을 주도록 강요한다. 의사들은 강연료를 명목으로 엄청난 뇌물을 받았고, ‘의약품을 공식적으로 승인된 용도, 투여방법, 대상 외에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오프라벨(off-label) 처방을 이용해 진통제를 편두통, 허리통증 환자에게 과잉 처방하게 이른다. 처방은 기업 매출증대로 이어졌고, 부정부패를 통해 허황된 기업가치를 만들어낸다. 기업공개(IPO) 이후 인시스의 주식은 1년만에 6배로 정점을 찍으면서 영업사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뇌물을 받은 의사들은 더 많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했다. 그 결과로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서브시스를 복용한 환자 중 약 8,1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화 주인공 리자는 싱글맘이자 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스타트업에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취업하고, 중독 위험이 높은 약품을 정확한 지식없이 판매하며, 의사들이 과잉처방하도록 리베이트를 제안한다. 처방이 늘어난 만큼 매출이 증가한 스타트업에서는 더 많은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이 리베이트 구조를 전국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기업공개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준법부서(compliance team)조차 갖추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의사결정에 관여한 증거를 없애기에 이른다. 제약회사에서 지녀야 할 최소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환자의 고통(pain)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했던 사기꾼(hustlers)의 이야기는 안타까운 피해자만이 남은 영화보다 더 잔인한 현실을 반영한다.

참고

- 뉴시스(2019.12.06), “마약성 진통제 최다처방한 뉴욕 의사 뇌물죄로 기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1206_0000852308&cID=10101&pID=10100
- How a Drugmaker Bribed Doctors and Helped Fuel the Opioid Epidemic (2020.1.24)
<https://www.aarp.org/health/drugs-supplements/info-2019/insys-opioid-bribery-case.html>



뉴스클리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조사됐다.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은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한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사회분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라고 말했으며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16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64549

국민권익위, 2023년도 1,38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공정성 여부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한 채용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에는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하고 그간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권한이 불명확해 공직유관단체지만 사실상 민간 영역인 것처럼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3개 기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내용은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의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을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비위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 조치하고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공직유관단체의 자체 채용 규정 중 공정채용 상위 지침을 위배·누락하고 있는 규정을 분석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채용규정 사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정기 실태조사 외에 채용비리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채용비리를 발견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24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65147

국내외 동향

중국, ESG공시 의무화 발표



중국 거래소가 2026년부터 대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3대 주요 주식 시장인 상하이 증권 거래소(SSE), 선전 증권 거래소(SZSE), 베이징 증권 거래소(BSE)는 상장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2월 8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들 SSE 180, STAR 50, SZSE 100, ChiNext에 포함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국내외 모두에서 상장한 대형 기업들은 2026년부터 지속가능보고서 의무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거래소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기업 보고 요구 사항에는 거버넌스, 전략, 위험 및 기회 관리, 지표 및 목표를 포함한 4가지 핵심 주제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성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은 물론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도 있다. 특히 이번 공시에는 Scope3 공시가 포함돼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EU,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기업에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하는 주요 시장에 합류하게 됐다.

- ESG경제 2024년 2월 13일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07>
- ESG경제 2024년 2월 14일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10>

EFRAG, 중소기업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공개

유럽연합(EU)이 중소기업을 위한 2개의 ESG 공시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 중 하나는 상장 중소기업 및 *캡티브 보험(Captive Insurance, 자가전속보험)사를 위한 공시기준(ESRS LSME)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공시기준(VSME)이다. (* '캡티브 보험사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 자회사를 의미한다. 기업 혹은 그룹사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 보험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월2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ESRS LSME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 기준은 ▲일반 요구사항 ▲일반 공시 ▲정책과 이행, 목표 및 지표 ▲환경 ▲사회 ▲행동 강령의 6개 세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은 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기준보다 단순하다. 기본 모듈과 정책 및 이행, 목표를 공시하는 모듈, 사업 파트너 모듈의 3개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EFRAG는 은행이나 투자자, 대기업이 비상장 중소기업에 다양한 ESG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표준화된 ESG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FRAG의 패트릭 드 캄부르그 지속가능성공시위원회 의장은 “이런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은 적절한 자금조달에 접근할 수 있고 무분별한 ESG 정보 제공 요구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ESG경제 2024년 1월 30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062961>
- EFRAG 2024년 1월 22일 <https://efrag.org/news/public-479/EFRAG%E2%80%99s-public-consultation-on-two-Exposure-Drafts-on-sustainability-reporting-standards-for-SMEs>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지난해와 동일한 63점, OECD 중 22위 유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월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한 단계 하락했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독일 베를린 소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하며, 국제투명성기구는 각국의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이권 및 카르텔 부패,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채용비리 적발 화 및 채용규정 정비 등 부패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평가 전문가와 국내·외 기업인 대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UN, OECD, G20 등 국제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월 30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list_no=65472&act=view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예고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한다고 2월 16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로 매년 5월 31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2020년 이후 보고서 점검 결과 공시 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 등을 위주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에 대한 지표도 중점 점검사항으로 포함되었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세부원칙 관련 내용은 필수 기재사항 여부(내용 충실도), 준수에 대한 판단 근거, 미준수 시 그 사유와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작성했는지(설명 충실도) 등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 이외에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 발견 시 점검 후 조치한단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올 5월 31일 이후 신속하게 점검해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 점검사항별 작성 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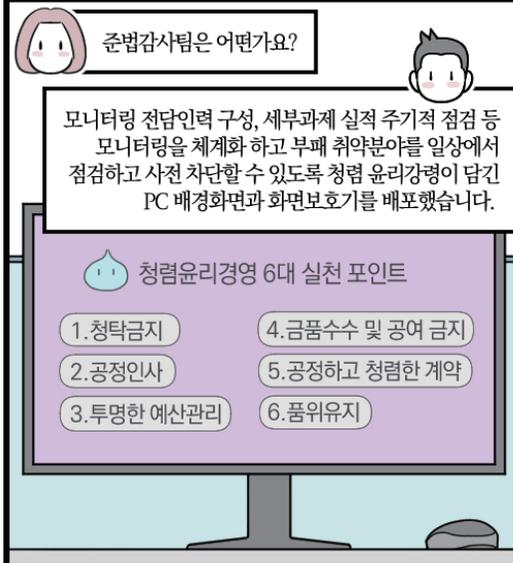
■ 한국경제 2024년 2월 16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684836>



윤리경영 점검 및 지정활동

웹툰

윤리네컷





행사소식

2024 OECD Global Anti-Corruption & Integrity Forum

외국의 간섭 위험, 인공지능의 부상, 기후 변화의 속도와 규모로 새로운 부패 위험이 발생에 대응하여 청렴성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새로운 견해와 통찰력, 증거를 공유하고, 민주주의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에 대한 반부패 정책과 청렴성 프레임워크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을 모색하고 뇌물방지협약의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

- 주최 OECD
- 일정 2024년 3월 26일(화)~ 3월 27일(수)
- 장소 OECD Conference Centre, 프랑스 파리
- 참고 <https://www.oecd.org/corruption-integrity/forum/home/>

9th Annual Sustainability Week

2024년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워크숍 등 범위한 네트워킹 기회와 전시회가 열리는 대면 행사로 비즈니스 및 산업 탈탄소화, 넷제로 파이낸싱, 공급망 및 순환성, 혁신 기술 및 적응, 생물 다양성과 자연 자본 등을 다루는 행사. 3월 4일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제를 다루는 가상회의도 진행된다.

- 주최 Economist Impact
- 일정 2024년 3월 4일(월)~3월 6일(수)
- 장소 Business Design Centre, 영국 런던(또는 가상회의)
- 참고 <https://events.economist.com/sustainability-week/>



안내

2024년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하단의 '청렴윤리경영 교육 신청 양식'을 작성하신 후 **청렴연수원 교육담당자 이메일(ksj1017@korea.kr)**로 '24. 2. 29.(목)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기업은 유선 통보 예정(3월 중)이며, 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교육담당자(☎043-901-6153, 김수진 주무관)에게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경영 교육이란?

- 청렴윤리경영 :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윤리원칙 등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법적·경제적 책임과 동시에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지며, 윤리원칙에 따른 경영과 조직의 핵심 가치 내재화를 뜻함
- 청렴윤리경영 교육 : 기업 내 청렴윤리경영 프로세스의 안정적 정착(조직 역량), 구성원들의 청렴 윤리인식 함양과 윤리적 딜레마 해결능력 배양(개인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전문 교육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2024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개요

1. 운영 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1월
※ (방문) 선정된 기업의 희망일자에 가급적 편성 / (합동) 수요조사 후 2회 실시 예정
2. 개설 과정
 - (1) 「민간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방문교육」
 - 교육대상 : 본사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위치한 국내 기업(기업유형 불문)
 - 교육시간 : 1시간30분 ~ 2시간(기업 사정에 따라 탄력 운영)
 - ※ 운영방식 : 집합교육이 원칙이나, 기관 사정상 전체 교육인원 수용 곤란 시 온라인교육 병행 가능
 - (2)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담당자 맞춤형 합동교육」
 - 교육대상 : 민간기업 윤리·준법경영, 감사 등 업무 담당자
 - 교육시간 : 1일 4시간 / 청렴연수원(청주시 소재) 또는 수요기업 소재지 대강당
 - ※ 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일시와 장소를 결정 후 추가 수요조사 실시 예정
3. 주요 내용 및 프로그램 (※ 청렴연수원 교육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맞춤형 구성 가능)
 - 청렴윤리경영의 의의,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우수 사례 등 공유
 - 업종별 빈발 리스크 분석 및 관리 방안
 - 판소리, 연극, 샌드아트 등 공연 방식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퀴즈

Q. 다음 중 청렴윤리경영을 점검하는 방안과 가장 먼 것은?

- ① 임직원 자가 윤리진단
- ② 협력사가 공유하는 행동강령 무시
- ③ 내부 컴플라이언스 감사
- ④ 내부고발 보고사항 조사 및 개선

퀴즈 응모 2024년 3월 8일(화)까지

- (1) '응모하기' 페이지(<https://quiz.assist.ac.kr>)에서 응답하시거나
- (2)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korea@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김○령님, 전○관님, 백○정님, 도○종님, 박○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